

# 산책하며 책 보는 생태숲공원 조성

### 전주시, 12월까지 15억2300만원 투입해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산책로·단풍숲·숲도서관 등 갖춰 추진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전주시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산책하며 책을 볼 수 있는 숲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서완산동 일원의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15억2,300만원을 투입해 '생태숲공원'을 조성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생태숲공원은 서완산동1가 35-1번지 일원 2183㎡ 부지에 산책로와 단풍숲, 조경시설, 운동시설, 숲도서관 등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33㎡ 규모로 지어지는 숲도서관의 경우 탁 트인 주변을 한눈에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숲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한 뒤 4월부터 도서관을 포함한 생태숲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숲공원이 조성되면 당초 잡목이 무성해 접근성이 떨어져 있던 공간이 산책로와 휴게마당이 어우러진 자연형 공원으로 변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45억원을 포함



전주시는 서완산동 일원의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15억2,300만원을 투입해 '생태숲공원'을 조성한다.(생태숲공원 조감도)

한 총 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 연말까지 노후주택 정비, 가로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공동이용 시설 건립, 주차장 조성, 마을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그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노후 주택 정비사업,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면서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다"면서 "생태숲공

원의 경우 숲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숙취에 좋은 전주 콩나물국밥”

### 내셔널 지오그래픽 UK, 전 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소개

문화, 예술, 탐험의 교과서로 불리는 세계적인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숙취해소 음식으로 전주 콩나물국밥을 꼽았다.

지난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UK(National Geographic UK) 사이트는 '숙취에 좋은 전 세계 9가지 음식' 중 하나로 전주 콩나물국밥을 소개했다.

'숙취도우미: 전 세계의 맛있는 치료제'의 저자인 로렌 쇼키(Lauren Shockey) 음식평론가는 "대한민국의 술 문화는 해장국이라는 새로운 음식의 장르가 탄생했을 정도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면서 "과, 고추 등을 넣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

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 콩나물국밥 외에 세계적인 숙취해소 음식으로 캐나다의 블러디메리(토마토주스를 넣은 보드카 칵테일), 하와이의 로코모코(밥 위에 버거패티를 올린 음식), 이탈리아 미드나잇스파게티(밤늦게 먹는 파스타)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전주 콩나물국밥은 2017년에도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인 미국 CNN으로부터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10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영국 출신 식도락 작가 그레이엄 홀리데이는 "새우젓과 김치, 오징어젓갈들이 반찬으로 같이 오르며, 특히 숙취로 곤욕을 치르는 여행객들에게 다음 날 아침 훌륭한 술국이자 원기회복을 위한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김윤상 기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지역마트 입점

전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마트에 입점시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는 사회적경제기업 9곳의 제품을 유명마트와 키마트 등 지역마트 13곳에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마트에는 새로운 제품을 활용한 이윤 창출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매출 신장과 판로 확대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점 예정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주농부협동조합 ▲제이피씨(주) ▲전주지역자활센터 한입푸드 ▲전주지역자활센터 한뫼 ▲두메산골농촌조합법인 ▲온고읍팍협동조합 ▲전주포파기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우리들농식품 ▲(주)엑솔 등이다.

누룽지, 부각류, 떡갈비 등 식재료와 마스크, 가방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시는 지역 마트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전용 진열장을 제작해 지원하고, 현수막과 홍보물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등 9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지역마트 입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덕진동 하가지구 파인마켓과 중화산동 햇빛찬마트에 요거트와 과자, 부각, 건조 산채와 콘드레 비빔밥 등 3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입점시켰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지역마트에 입점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자동 재충전으로 문화누리카드 10만원 지원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는 지원금이 1만원 늘어나고 충전도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발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카드다.

지난해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9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만원이 늘어난 1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기존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해주기로 했다. 매년 신청을 통해 충전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이전인 자거나 지난해 지원

금을 전액 미사용한 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mmuri.kr), 전화(1544-3412)를 통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재충전해야 한다.

이용자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활동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2만8,300명에게 25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예산 대비 이용률은 95.57%를 기록했다.

사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온라인 이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청년희망단' 새 출발

### 청년·행정 소통창구 역할 진행할 제5기 희망단 발대식 가자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할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새 출발을 알렸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청년과 행정의 소통창구 역할을 진행할 '제5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의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꾸려진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만 18~39세 청년 60명으로 구성돼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희망단 운영계획과 일정이 소개됐고,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전국 청년활동가들이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연말까지 팀별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취업, 소통, 복지 등 청년 문제를 발굴·조사하고,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타 지자체 청년단체와의 교류 ▲워크숍 ▲벤치마킹 ▲전문가 제안(간담회) 등의 활동을 거쳐 올 하반기에 팀별로 발굴한 정책들을 시에 제안하는 발표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희망단을 운영했다. 청년희망단은 1~4기 동안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청정시대(youth.jeonju.go.kr)' ▲청년 캠퍼 정책 '청년인생학교' ▲지역청년 JOB 소통사업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직접 제안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